

大學發展의 期展을 위한 大學圖書館 育成論

金 萬 碩
弘益大中央圖書館

1. 序

大學圖書館은 그 大學의 거울이며 求心點이다. 어느 나라를 가든 圖書館을 먼저 보게 되며, 어느 大學을 가든 그 大學의 圖書館을 먼저 대하게 된다. 그것은 圖書館을 보고서 그 나라 그 大學의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또한 그 나라 그 大學의 評價 尺度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얘기는 상식이며 누구나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圖書館이 현저히 發達된 나라이면서 國力이나 文化나 經濟的 여러面에서 뒤진 나라는 찾아 볼 수 없으며, 훌륭한 圖書館을 가진 大學이면서 명성있는 우수한 大學이 아닌 곳도 없다. 환언하면, 先進國일수록 圖書館은 훌륭히 發展되어 있으며, 명성있는 大學일수록 훌륭한 圖書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事實上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여러 機構中에서 가장 훌륭한 機構임인 누구도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많은 大學들이 獨立된 圖書館대로의 發展策도 講究하지 않은채, 無關心속에 外面해은 事例가 많았던 것이며 묵인되어 왔을 뿐이었다.

1960年代에는 그 大學에 圖書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有無를 論하는 정도였으며, 70年代에 들어서서는 大學設置基準令에 依한 對策에 급급하는 것은 그만 두 고라도 장서량과 열람석을 늘리는 量的 問題에 눈을 돌렸다. 그런가 하면, 이제 80年代를 눈앞에 두고 있는 70年代 후반기인 近來에 와서는 어떠한가. 大學마다 질세라 매머드 圖書館建立을 경쟁이나 하듯 다투어 세우고 있다. 施設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努力은 實質的인 問題에 關心을 두기 始作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大學圖書館들이 그들의 大學當局에 전혀 外面面 當하고 있지 않다는 시사이며, 大學圖書館 자체에서 보아도 擔보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評價를 내릴 수 있어 저이기 多幸이 아닐 수 없겠다. 비록 大學의 量的 膨창과 함께 많은 問題點이 提起되

어 오긴 하였으나 이와 同時에 大學의 質的 發展도 어느 程度 이루어져 왔음을 시인한다면 分明 大學圖書館도 發展해 왔음에 틀림 없다. 그러나 아직도 內的인 問題點들은 散在해 있다. 圖書館機能을 前提로 한 建物施設의 확충, 效率的인 組織과 有能한 司書의 확보, 不足함이 없는 장서의 증대, 閱覽業務의 최선화 극대화, 技術業務의 개발과 개선등등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財政的 뒷받침을 可能케 하는 豫算의 확보와 적절한 管理등이다.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問題는 고등교육의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教授의 質과 學生의 면학정신을 일깨우는 教育의 광범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大學圖書館 發展을 爲한 育成策을 소홀히 하거나 제의 시킨다면 大學의 진정한 發展을 기대할 수 없으며 國家教育 百年大計에 依한 高等教育의 改革도 기대난이 될 것이다.¹⁾ 따라서 大學教育을 改革하고 大學의 진정한 發展을 위한 策은 大學圖書館을 育成시키는 課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課題는 國家의 立場에서는 勿論 大學當局에서 적극 나서서 打開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大學과 圖書館

참다운 大學은 人的 資源을 開發하기 爲해서 뿐만 아니라 知識을 保存하고 해석하고 發展시키기 爲해 存在한다.²⁾ 이같이 진정한 大學다운 大學으로 發展시키기 爲해서 大學의 理念和 使命이 수반하는 것이며, 그 理念을 구현시키고 使命을 다하도록 보다 積極적이고 강력한 뒷받침을 해 줄수 있는 機構가 곧 大學圖書館인 것이다.³⁾ 教育法 第108條에 의하면 “大學은 國家와

1) '73 文敎部 教育政策審議會에서 提示된 「韓國高等教育改革의 方向摸索」에서 24個의 提案中 大學圖書館에 關한 研究는 全無하였으며, '74. 3. 4월에 있었던 實驗大學의 운영 평가회에서 圖書館에 關한 評價事項으로는 겨우 圖書購 入費의 增額 必要性程度를 提起했을 뿐이다.

2) Gelfand, M.A., 大學圖書館, 이병목譯(서울: 한국도서판 협회, 1972), p.15.

3) 拙著, 大學圖書館의 參考奉仕促進과 研究指導教授제에 關한 考察(서울: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6), p.9 間행성사학위논문.

館은 學生들에게 知的 양식을 제공하고 教授陣의 研究를 뒷받침한다는 意味에서 圖書館 利用은 하나의 教育의 方法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곧, 재래식 教育의 강의 방식에의 편중이나 토론 방식을 초월한 새로운 教育 方法으로 그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2. 大學圖書館 育成의 問題

大學圖書館을 育成하기 爲해서는 갖가지 方案이 있겠으나 가장 重要한 問題는 우선 大學에서의 圖書館 必要性和 重要性을 認識하는 것이며, 이 基本的인 認識이 되지 않고는 圖書館의 전문성이나 育成策을 理解할 수 없을 것이다. 이 問題는 前述한바 있으므로 다만, 本論에서는 大學圖書館 育成을 爲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갖추고 對應策을 세워 나가야 하는가 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몇몇 問題를 다루고자 한다.

1) 建物와 施設面

大學圖書館建物は 그 구조가 복잡하고 特殊한 關係로 建物을 設計하고 設備할 때는 반드시 圖書館의 諸般機能과 條件을 충분히 理解해야 한다. 設計는 圖書館의 現在業務에 直接的으로 연관되어야 하지만, 業務發展에 따른 장래 變경에 對備하여 융통성과 개조성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本質的으로 建物의 形式은 建物의 機能 다음에 와야 한다.⁷⁾

韓國의 大學圖書館 建物は 종래엔 거의가 기존 建物을 利用하였으며, 獨立된 建物일지라도 圖書館 機能을 고려하지 않은채 外形의 규모에만 신경을 쓴 흔적이 많다. 우선 建物이 훌륭하여야 利用者들의 발길을 끌어들일수 있는 것이지만 圖書館 機能을 前提로 한 內實化된 建物일 것이 더 重要하다.

近來에 와서 많은 大學들이 圖書館建物の 신축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과거의 무원칙한 建築이 아니라 圖書館 機能을 考慮하고 또한 圖書館의 重要性을 인식한 然後의 計劃들이라는 점이 多幸이라 하겠다. 경희대학의 경우 총건평 5,400여평 7층의 建物로서 화려한 대리석으로 內部가 장식되어 있고, 45만여권의 장서와 2천여석의 열람석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서강대학 역시 獨立된 건물로 다분히 서구식으로 갖춘 내부 시설에 완전 개가식 열람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서울대학의 경우 관악 캠퍼스 중앙에 냉난방 시설을 完備한 총 9,244坪의 매머드 6층 건물에 4천석의 열람석과 120만권을 수장 할수 있는 서고를 지닌 대규모 圖書館을 신축 준공한바 있다. 이밖에 동덕여대가 연건평 1천평의 完全 개가식으로 地下 1층, 地上 4층의 建物을 준공하였으며 梨花女大, 韓國外國大, 弘益大등이 증축 또는 신축중인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私學의 名門이라 일컫는 양대산맥 延大와 高大가 경쟁

이나 하듯 신축중이다. 延世大는 대지 1,031坪에 地下 1층, 地上 5층, 옥탑 2층의 大學내 가장 큰 建物로서 열람석 1,800석, 장서 70萬 내지 80萬을 수용 가능한 연건평 5,300평의 最新式 設備로 갖출것이라 한다. 반면에 高麗大는 연건평 4,390평의 地下 1층, 地上 4층으로 1,800여명 수용 가능한 大閱覽室을 갖추고, 장서는 현 35萬卷에서 2백만권으로 늘릴 계획이라 한다.

이같은 현상은 外的으로나마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意味하는 것이나 결만 화려하지 않도록 內實을 期해야 된다. 內部 施設中 가장 중요한 것은 냉·난방 시설이다. 계절에 관계없이 恒時 開館되어 있어야 하며 恒時 利用者가 찾아들게 해야 된다. 여름엔 덥다고 겨울엔 춥다고 도서관을 기피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냉·난방 시설과 함께 考慮할 것은 圖書와 人體에 必要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즉, 공기조절(air-conditioning)이 可能해야 될것이다. 그리고 照明度는 均一하게 配分되어야 하며, 벽, 천장, 책상등 반사면 處理에 있어서 光度의 差가 나지 않는 照明 施設이 必要하다. 日光은 光源이 될 수 없으며, 書庫內의 照明은 특히 서가의 아래와 위를 고루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 또 重要한 것은 조용한 분위기 조성을 爲한 防音시설이다. 完全防音은 不可能하다 하지만 閱覽者들을 爲해서 조용한 분위기는 절대로 필요하며 모든 努力을 경주해야 한다.

그밖에 장서 保存을 위한 燻蒸消毒器具(fumigation equipment)의 準備, 원활한 전화시설, 화재예방 시설, 승강기, 도서운반기, 컨베이어(conveyor), 各室間의 通信시설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特殊業務를 위한 마이크로 필름투영기, 마이크로 카드독서기, 전축, 녹음기, 영사기, 사진기구, 전자복사기등이 필요하다. 圖書館 施設이나 用品은 이같이 特異하며 갖추어야 될 設備는 最小限 다 갖출 수 있어야 하겠다.

2) 圖書館 장서와 豫算面

建物 및 施設이 갖추어진 연후에 우선 必要한 것이 豫算과 장서의 確保이다. 장서는 그 大學의 特性에 맞는 올바른 수서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수서 방침에 의거 단계적으로 增書해 나가야 한다. 大學마다 圖書館 豫算不足등의 이유를 들어 장서 확보를 소홀히 한다면 圖書館은 허울만 좋은 結果를 낳을 것이다.

大學圖書館이 보다 效率的으로 運營되려면 大學의 教授 및 研究에 所要되는 적합한 圖書와 其他 圖書館 資料를 마련하는데 慎重을 기해야 한다. 도서선택에

7) Gelfand, M.A. 前掲書. p.166.

있어서 圖書館이 전적으로 責任을 진다면 圖書館은 教授들의 전문주제 分野 知識을 最大限으로 活用하기 爲하여 진밀한 유대관계를 개발해야 한다. 圖書館 組織과 管理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은 수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大學의 규모나 단과대학의 地理上 位置에 따라 多量의 복권을 구입하여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大學의 규모를 떠나 모든 高等教育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기본장서 이른바 도서와 정기간행물로 이루어진 훌륭한 장서가 필요하다.⁸⁾

과거의 大學教育 方式에 따른다면 강의 위주로 教科書 中心의 科目으로 學生들로 하여금 광범한 독서와 레포트 作成을 하게 하지 않으나 오늘날의 大學教育 상황은 현저히 달라져 개별적 지도와 광범위한 개인 연구나 레포트 作成을 요하는 만큼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은 더 클뿐만 아니라 훌륭한 충분한 도서관 장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대학원의 수업과 연구에는 1次的인 基本資料와 2次的인 資料로 구성된 광범한 장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서의 多量 확보는 原則을 무시하고 수서되는 것이 아니며 신중을 기해야 된다. 무사안일 주의로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수서를 하는 도서관이 아니라면 수서 담당자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와 병행해서 도서관 예산은 장서 구입에 비중을 크게 두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수서정책의 수립과 이의 원활한 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대학 財政當局의 적절한 圖書館 豫算책정이 요구된다.

大學을 관할하는 當局은 圖書館 豫算을 적절하게 마련할 責任이 있고 大學圖書館長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⁹⁾ 또한 유능한 관리자의 수중에선 예산이 도서관 계획과 財務管理를 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¹⁰⁾ 아문은 圖書館 豫算은 豫算신청을 정당화해야 하며 一定한 기준을 가져야 하며 豫算作成에서 圖書館長은 가능한 광범위하게 關係者들과 협의하고 모든 운영상의 情報를 未來에 對備하여 수집하고 난뒤 가예산을 作成해야 한다. 요는 대학 재정 당국이 도서관 예산 책정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과 책정된 예산을 유효 적절히 집행하는 도서관의 관리가 합리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3) 組織과 人事面

규모가 적건 크건, 대학도서관은 그 目標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훌륭히 組織되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管理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규모가 크고 성장이 빠른 도서관의 수서 기능은 직원의 규모가 커야할 것이며, 분류 편목의 기능도 보다 많은 司書가 필요할 것이다.¹¹⁾ 그러나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는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대학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주요기

능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大學圖書館의 業務는 대체로 일반 관리업무(서무), 기술업무(정리), 독자업무(참고봉사·열람봉사), 특수업무(시청자 자료) 등으로 나누어 진다. 組織은 이러한 업무를 종합하여 효율적인 人事·業務管理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組織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도서관의 경우엔 전문성을 전제로 하여 우선 부서화(departmentalization)해야 될 것이며 中央集權化나 分散化의 문제는 대학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은 아직은 조직이 소폭이라 하겠다. 따라서 거의 중앙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제대로 부서화되어 있는 도서관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대개 보편적인 유형을 보면 대학당국 아래(총장) 수직으로 도서관장 그리고 수평으로 도서관 자문위원회나 비서직 업무 그리고 다시 수직으로 부관장으로 내려와 수평으로 사서과장, 열람과장, 정리과장, 관리과장식으로 조직되고 소수의 주임을 중간 관리층으로 하여 각실(참고실, 연람실, 대출실, 정리실등)로 적절한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조직한다 하여도 대학 도서관은 최소한 종합대학 경우 3과(사서과, 열람과, 정리과) 4실(참고실·대출실·정리실·서무실) 또는 5실(수서실포함)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직을 구성하여야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꾀할 수 있다.

서울대학의 경우 4과(수서과장·정리과장·열람과장·참고서지과장)로 조직되어 있으며, 경북대의 경우 분관장, 의대 분관장, 수서과장, 열람과장이 있고, 영남대학은 3과 이하 각실이 있으며, 성균관대, 고려대, 동국대 등은 2과(사서과장·열람과장)가 있는데, 홍익대만 경우 1과도 없이 주임 1인 이하 각실이 있을뿐이다. 수개 大學을 제외하고는 거의 1과 이하 몇개의 실만으로 조직된 예가 허다하다. 훌륭하고 완벽한 조직은 그 기관을 훌륭하고 진실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다음 조직이 잘 구성된다 하더라도 인사관리의 불합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사서직의 확보는 어렵게 된다.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중국적으로 사람이다. 도서관에서는 곧 사서들인 것이다. 훌륭한 조직은 이같이 훌륭한 사서들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오늘날의 대학도서관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이직율이 높아진 경향이다. 60년

8) Gelfand, M.A. 前掲書 p.83.

9) Gelfand, M.A. 前掲書 p.191.

10) 上掲書 p.194.

11) 上掲書 p.43.

대에는 대학도서관이 호감을 가져 많은 사서들이 진출하였으나 70년대에 들어서는 각종 研究기관으로 속속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새로이 배출되는 예비 사서들도 대학도서관을 경원하며 진출하더라도 잠시 견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생각하는 정도다.

대학도서관의 유능한 사서들이 계속 그같이 타 기관에 의해 스카우트 되거나 이직한다면 대학도서관에 유능한 사서의 확보 유지는 난제가 아닐수 없겠다. 특히 80년대에는 대학도서관의 조직도 확대되고 분산화 될 것이 예측되며 주제별 열람실도 갖출것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라 주제배경(인문·사회·자연·예술등)을 지닌 碩士學位 以上の 주제전문사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司書職의 지위 문제나 대우가 개선되지 않는한 대학도서관의 사서 확보는 물론 도서관들중에서 大學圖書館이 가장 되떨어지는 館種이 될 것이며, 大學圖書館의 질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司書職은 전문직으로서 일반 사무직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따라서 대우도 월등히 높게 해주어야 마땅하다. 어떤 직업이든 대우가 좋은 직장을 찾아가게 마련이지만 특히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이 營利를 추구하는 것과 차원이 틀린다는 것이 問題點이다. 그러나 교육기관 일지라도 대학당국이 조금만 신경을 써 준다면 有能한 教授와 有能한 司書와 훌륭한 學生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4) 閱覽奉仕와 技術的인 面

圖書館의 궁극적인 目標은 閱覽者에게 圖書館 장서 이용과 司書들에 의한 最善 最大의 奉仕를 제공함에 있다고 한다면 완벽한 건물시설과 우수한 司書와 풍부한 장서를 확보하더라도 그 成果는 결국 열람자들의 만족도로 측정하는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열람자 봉사라는 最終단계의 마무리 作業이 合理的이고 순조롭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對 閱覽奉仕 체계가 적극 봉사체제화 하여야 하며 친결·연구봉사정신이 확립되어야 한다. 곧 司書의 자세 확립¹²⁾이 要求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圖書館은 自體에서의 各種 技術業務와 閱覽業務를 改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教授·學生을 爲한 圖書선택에서 圖書 購入이라는 收書業務와 이를 신속하고 正確히 分類편목하는 정리업무 그리고 閱覽에 불편이 없도록 圖書流通을 원활히 하여야 할 貸出반납業務 및 洪水처럼 쏟아져 나오는 각종 學術情報의 입수에서 열람까지 이르는 定刊物업무, 그리고 나아가서는 閱覽者들의 各種 도움 요청에 응할수 있는 參考業務등에 이르기 까지 諸 問題를 恒常 研究하고 改善해 나가는 것 들이다. 따라서 司書의 資質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司書들의 끊임없는 연수교육이 必要한 것이다. 그으로

서울대학교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기타 각종 연구기관등에서는 司書들의 해외 연수계획이 빈번히 실천되고 있으며 弘益大의 경우는 관내 研究發表가 72년이래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圖書館의 質的 發展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실제 업무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司書職의 人事面에도 참작이 되어야 그들의 사기는 물론 자질향상이 계속 유지 될 것이다.

이제 司書의 자세확립과 자질향상이 해결된다면 남은 것은 실천이다. 곧 司書와 教授, 司書와 學生등 상호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教授 學生은 司書를 신임하고 理解하여야 하며 司書 또한 閱覽者들을 理解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¹³⁾ 圖書館의 이같은 모든 성의와 노력도 閱覽者에 의해 成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圖書館은 顧客없는 빈 건물로만 남을 것이므로 열람자와 司書들은 보다 친밀감을 갖는데 상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大學當局은 여러각도에 측면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술혁신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여 활결과 열람봉사에 차질없는 교수회와 학생회의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될것으로 보여진다.

3. 結

1) 大學當局의 關心度

大學當局은 大學圖書館을 과거처럼 大學의 한 부속 기관 같이 여기는 습성을 탈피하고 중핵기관이라는 적극 關心下에 大學圖書館 育成에 인식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전문적인 업무는 그 운영에 있어서 圖書館 자체가 맡겠지만 전반적인 財政的 뒷받침이나 育成責任은 궁극적으로 大學當局에 있음에 分明하다. 大學의 發展은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前提로 한다는 重要性을 大學 當局들은 再認識하여야 할 때이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大學圖書館 發展에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대학 당국들은 대학도서관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편임은 부인 할수 없다. 前보다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事實이나 이것은 거의 外形的으로 나타난 成果나 評價이지 실제 어느 정도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그 密度는 未知數다. 건물과 시설면에서 뿐만 아니라 組織과 人事 그리고 열람봉사 및 장서의 증대, 기술업무등에 이르기 까지 改善하고 發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뒷받침과 협조는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上述한 문젯점들은 大學當局의 성의와 관심도의 高低에 따

12) 拙著, “司書의 자세확립에 관한 소고” 도협월보 16, 1. pp.3-5 참고.

13) 拙著, “열람자의 司書에 對한 認識度 考察” 도서관 30, 6. pp.45-53 참고.

라 타개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것이다.

2) 結 言

대학도서관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계기되는 문젯점들은 어떠한 것들이며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大學當局의 할일은 무엇이며, 大學當局의 최종목표는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명성과 전통을 확립 유지시키는데 있다면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대학도서관의 우선 육성이라는 점들을 지금까지 논술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육성은 대학의 발전이며 대학의 발전은 명성과 전통을 수립한다는 등식이 成立되며 이 等式을 가능하게 성립시키는 열쇠는 대학당국이 쥐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환언하면 대학당국은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육성하여야 될 의무를 지닌다. 그렇게 되면 대학도서관의 전망은 밝다고 볼수 있다. 이제 필자가 그동안 大學圖書館에 적을 두면서 既發表한 數篇의 拙稿들을 綜合 檢討하면서 이 글을 整理할 수 있었다. 當時當時의 論文들이 各論이었다면 이 글은 大學圖書館에 關한 總論에 불과하다 하겠다. 따라서 미흡하고 개략적인 내용이 될수 밖에 없을것이다. 그러나 바라건대, 이 글이 우리나라의 모든 大學當局들에게 圖書館 育成의 重要性과 必要性을 재인식시키는데 계기가 되어 本 論文의 意義가 살아 남기를 바란다.

會費再調整(引上)에 關한 案內

會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協助과 聲援에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協會는 會員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後援과 積極的인 參與로써 꾸준히 發展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自立財政의 確保라는 基本的인 問題가 아직껏 解決되지 않은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能動的이고 활발한 事業의 展開와 會員을 위한 權益擁護의 터전을 積極 마련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協會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너나 할것 없이 會員 모두가 몹시 걱정해 오고 있으며 그 打開策에 대하여 論議되어 왔읍니다만 아직까지 根本政策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와 關聯하여 現在 協會의 唯一한 財源으로 되어 있는 會員負擔金인 會費를 引上하는 問題가 今年度 定期總會席上에서 具體的으로 學論되어 78年度부터 引上키로 決議되었읍니다.

協會가 제 機能을 發揮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于先 最少의 財政自立만이라도 確保되어야 하겠읍니다. 團體會員이나 個人會員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不可避한 會費 引上 措置를 깊이 理解하시어 전폭적인 協助과 後援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會費案內 (78年度부터 施行)

團體會費 :	A	급	年	70,000원
	B	급		50,000원
	C	급		35,000원
	D	급		10,000원
	E	급		5,000원

個人會費 : 年 2,000원